

“‘이런 사람들 있다’ 인정해주세요”

[차별금지법]

장애인·성소수자·비정규직 집담회...“시발점 되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뉴스1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관련 집담회'에서 은평지역 인권활동가 박성준씨가 자신이 생각하는 차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일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다. 장애인인 박성준 다소니아립생활센터 소장과 성소수자 김보미 님(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표, 최근까지 비정규직이었던 김성식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국립과천과학관분회 사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집담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시발점에 불과하다”면서 일단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실생활에서 흔히 겪는 차별은 무엇이 있을까.

▶(김보미) 얼마 전 지하철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광고를 보고 딱 와닿은 게 있다. 청년은 항상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럼 나는 청년에 포함이 안 되는건가?’ 싶어 갑자기 열혈이 나더라. 또 파트너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수술동의서를 쓸 수 없는

부분도 그렇다. 이 사람의 평소 질병을 가족보다 더 잘 아는데도 동의서를 쓸 수가 없다. 나열하면 끝도 없다.

▶(박성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서 이동이나 공간에 제약이 많다. 며칠 전에 연습실을 예약하는데 연습실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어 전동휠체어가 들어가면 훼손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은 적이 있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데 공간을 위해 사람이 배제되는 상황을 보면서 ‘뭐가 먼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곳에만 갈 수 있는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김성식) 취업규칙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다. 성과급을 주지 않는데도 말이다. 사실 이 규칙은 두번 연속 최하위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작용한다. 실제로 그 평가를 받으신 분들 중 몇 분은 퇴사를 하셨고, 한 분은 노조를 찾아오셨다. 여전히 파리 목숨이란 소리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되고 14년이 흘렀다. 그동안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김보미) 상황이 교묘하게 더 나빠졌다. 정치적으로는 이 이슈를 이용하고, 특정 종교안에서는 외부에 적을 만들고 내부 결함을 위한 도구로 쓰고있다.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는데는 ‘포괄적’이란 맥락 때문인데 장애인 등 다른 소수자들께서 끝까지 성소수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주셔서 그렇다. 그래서 연대가 중요하고, 끝까지 이 문구가 들어가서, 모든 분들의 의지가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박성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 2008년 시행됐는데 10년 뒤가 너무 다르다. 예를 들면 지금은 명시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줄었다. 왜냐? 법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평등법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후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자구(字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무엇을 위한 법인지 명확히 드러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만큼 분명히 드러난 법령은 없다. 그런데 거기서 후퇴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개선교준치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어려분에게 차별금지법은 어떤 의미인가.

▶(김보미) 나는 시발점이라고 본다. 수많은 차별적 요소들을 하나 하나 바꿔 나가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그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까.

▶(박성준) 법이 있어야 무엇이 차별인지 알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법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모르고 지내왔던 차별 지점을 한번쯤 돌아볼 계기가 될 것이다. 뉴스

화순군, 다문화 가정도 차별없이 결혼이민자도 재난소득 받는다

정부지원금 별도 전군민 1인당 20만원...17일까지 신청 접수

화순군은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전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화순형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결혼 이민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군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화순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6일 기준 화순군 거주자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하고 △재한외국인 체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결혼 이민자다. 이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화순군은 결혼 이민자 지급 대상을 263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다. 신청서, 외국인등록

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결혼 이민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구원 중 성인 1인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결혼 이민자들의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화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통역 도우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충곤 군수는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도 염연한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주시, 취약계층 치과치료 지원

아동·청소년 60명...YGPA·LG화학·여주시치과의사회 등 함께

여주시는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LG화학 여수공장, 여주시치과의사회,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과치료 사업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꿈꾸라, 희망 스마일’이란 이름의 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치과치료가 필요한 여주시 거주 저소득층 초·중학생 60여 명에게 진료비(본인부담금)와 예방 진료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 기관·단체들은 최근 여수시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사업 홍보와 행정 지원, 대상자 선정과 치료료 구강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1월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연기돼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